

“AMPQ-II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른 학교 상담의 효과: 상담자 요인 및 회기 수를 중심으로

설지원¹, 김근영^{2*}

¹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Effectiveness of school counseling based on “the AMPQ-II and administrative manual”: Focusing on the counselor and the number of session factors.

Ji Won Seul¹, Geunyoung Kim^{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정부는 학생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에 즉각 개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AMPQ-II) 및 관리매뉴얼”을 통해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지역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48명의 관리대상 중학생이 개입 후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자격증 종류와 상담 회기 수에 의해 그 효과가 다른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경우 민간 자격집단에 비해 개입효과가 떨어졌으며, 회기 수 수준별 개입효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적은 표본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의 핵심인력인 전문상담교사 및 국가공인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하였으며, 단순히 상담 회기 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추후 학교상담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administered the 'AMPQ-II' to all middle school students to prevent psychological problems and make immediate interventions when necessar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paucity of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governmental policy, or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Using the data from 48 counselees from two middle school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and whether the counselor's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might matter in the effect. The results suggested that most students reported improvements after the interventions. The intervention effect was less pronounced when the counselors had governmental certification.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for predi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s. Interpretations of the present study should be made cautiously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The present results, however, suggest that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unseling teachers are necessary. In addition, increasing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Key Words : AMPQ-II, Counselor's characteristics, Counseling effect, School Counseling,

본 논문은 설지원의 2014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Geunyoung Kim(Sogang Univ.)

Tel: +82-2-705-7970 email: kimg@sogang.ac.kr

Received September 16, 2014

Revised (1st November 13, 2014, 2nd November 20, 2014 3rd November 24, 2014)

Accepted February 12, 2015

1. 서론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 부적응, 자살, 학교 폭력과 같은 청소년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언급되어 왔다[1]. 최근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 중심적, 문제 해결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2], 정부 역시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위 프로젝트(Wee Project)”와 같은 학교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개입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과 비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기저에는 학교 중심의 개입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존하는 소수의 학생정신건강 제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단위의 거시적 연구이며 실제 학교 현장 중심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3]. 더욱이 국가 주도의 연구는 주로 일선학교의 실무자가 전산을 통해 보고하는 자료 및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거시적 연구 및 조사가 가진 유용한 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는 별로 보고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과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학교 중심 개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관련 변인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AMPQ)”를 통한 국가개입 프로그램이 특정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특성과 회기 수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상담의 개념과 역사

학교상담은 학교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자격을 갖춘 상담인력이 행하는 활동으로, 학생, 부모, 교사들을 돕는

광범위한 봉사활동이라 정의된다[4]. 한국의 학교상담제도는 교도교사 제도를 시초로 교과담당 전문상담교사제도, 비교과상담 순회교사제도, 상담전담 전문상담교사제도 등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 및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반영이었다.

학교 상담의 제도화는 1958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문교부의 교도교사 양성으로 시작되었다[5]. 이후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교도교사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학교상담은 법적인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교사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교도교사 자격 연수가 교사들의 승진제도와 관련되면서 상담 보다는 승진의 목적으로 연수를 받는 인원이 많아졌으며, 이론 중심의 연수와 짧은 연수기간으로 인해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7년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연수시간과 내용을 보완하고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교도교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만한 교육과정과 실습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전담 상담교사, 순회교사제도, 상담만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제도 등으로 그 명칭과 역할규정만이 바뀌곤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위기가 증가하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 역시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8년 위 프로젝트 (Wee Project)라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진단-상담-치료를 One Stop으로 제공하는 안전통합시스템을 의미한다[6]. Wee Project는 위기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학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1차 안전망에 해당하는 단위 학교 내 대안 교실인 “Wee Class”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Wee Class는 단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주위가 산만하거나 대인관계 문제, 학습흥미 상실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7]. 이러한 환경적 여건의 조성과 함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AMPQ)”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내 학생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과 매뉴

얼을 개발하여 수정 및 보완해오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1 학교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담자의 전문성과 회기 수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학생의 경우 국가 혹은 학교에 의해 규정된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 유형에 해당한다. 비자발적 내담자의 경우 자발적 내담자에 비해 중도 탈락률은 높은 편이며 상담의 효과성은 낮을 수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상담의 효과가 있는 내담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내담자가 있는 법인데, 상담자의 전문가적 특징, 혹은 상담의 물리적 특징들은 상담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9].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10],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변인은 치료자의 성, 연령, 인종과 같은 외적 특성, 치료자 훈련정도, 전문적 경험, 개입의 종류 등과 같은 외적 상태, 치료자 성격, 대처 유형, 가치, 신념, 태도 등과 같은 내적 특성, 그리고 치료적 관계, 이론적 배경 등의 내적 상태의 4가지 하위 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특히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의 성과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학교상담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담자 특성과 상담 지속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연구[11]에 따르면,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은 크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통과한 상담자와 민간학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제도를 통과한 상담자의 두 가지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나누는 근거로, 국가가 인정하는 상담 관련 자격(대표적으로 교도교사, 청소년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상담이 주 업무인 자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반해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담전문가 자격은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교육 내용보다 더 많은 현장실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상담능력을 더 잘 반영해 준다고 보았다.

실제로 상담 관련 경력이 없는 타교과 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3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육개발원[12]은 국가가 부여하는 상담 관련 자격의 경우 민간 자격에 비해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습시간이나 훈련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상담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는 아직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이자, 특히 현 제도상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변인은 상담의 회기 수이다. 현재 한국의 학교상담은 물리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상담이 어려우며, 따라서 '단기개입 상담'을 지향한다. 단기개입 상담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담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상담, 예를 들어 진로상담의 경우 대체로 평균개입 기간이 5-6회일 경우 가장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3], 과반수의 내담자들은 짧은 개입기간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14]. 따라서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매뉴얼은 6개월 이내 최소 1회 내지 4회 수준에 해당하는 학교 내 단기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6]. 다만 국가 지침에는 상담 회기수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 실제 상담회기 수에 따라 학교상담의 효과의 차이가 있는 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회기 수에 따라 관리 대상 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작업은 관리매뉴얼에 의한 개입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후 정부 정책 평가와 수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첫째, 학교상담을 받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 후 심리적 상태에서 유의미한 호전이 있을 것이다.
- 둘째,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자에 비해 개입효과가 더 클 것이다.
- 셋째, 상담의 회기 수가 증가할수록 개입 효과는 더 증가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연구 대상은 201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수행한 K지역 A, B 중학교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관리 대상 학생 중 사후 검사가 가능했던 총 58명의 학생이다. 관리대상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총점이 절단점수(남:33, 여:35) 이상을 받던가, 둘째,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우울검사 중 소위 ‘결정적인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던가, 셋째, 우울검사에서 절단점수인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각 점수에 대해서는 측정도구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들 중 A학교의 학생은 총 33명, B학교의 학생은 총 25명이었으며 여학생은 총 38명, 남학생은 총 20명이었다. 사후검사 결과 문항을 누락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3명과 관리매뉴얼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7명을 제외한 총 48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차이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48명의 학생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상담을 받았다. 첫 번째 집단은 국가자격증 보유 상담자군으로 여기에는 전문상담교사 1인과 국가공인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1인 등 총 2인에 의해 상담이 진행된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민간자격집단으로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부여한 상담자격증을 가진 2인에 의해 상담이 진행되었다. 모든 상담자는 여성이며 국가자격 집단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민간자격 집단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이었다. 자격증 취득 후 실무기간의 평균은 국가자격 집단, 민간 자격 집단 모두 1.5-2년 사이에 해당하였다. 최종 학력 역시 모두 대학 및 대학원 석사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각 상담자 집단간 교육수준, 교사년수, 연령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2 측정도구

3.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AMPQ-II)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6년 청소년 문제에 있어 학교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발되었다[15]. 초기에 제작된 검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요인분석상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포함되어 타당성 문제가 거론되었다[16]. 이러한 문제점과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 AMPQ-II가 개

발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전국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AMPQ-II검사는 기존의 내재화 문제 및 외재화 문제라는 기본적 구성을 다루는 동시에 소위 ‘결정적인 문항’의 중요성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AMPQ-II는 총 38문항으로 크게 걱정 및 생각(요인 1), 기분 및 자살(요인 2), 학습과 인터넷(요인 3), 친구문제(혹은 학교폭력 피해징후; 요인 4), 규칙위반 및 가해행동(요인 5)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이외에도 경련, 수면장애, 과도한 성적 사고, 가족 갈등,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문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후 2013 관리매뉴얼에는 AMPQ-II 하위 요인 구성 중 규칙위반 및 가해행동(요인 5) 요인을 제외하고, 위험문항을 추가하여 총 38문항의 AMPQ-II 검사를 제시하였다[6].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된다. 2013년 중학생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총점 남자 33점, 여자 35점을 기준으로 일반관리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분류되며, 남학생 38점, 여학생 40점 이상의 경우 우선관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6]. 그 외에도, 결정적인 문항 중 문항 7(자살사고)에 2점 이상(조금 그렇다)으로 답한 학생은 ‘자살사고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며, ‘친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항 8, 문항 11, 문항 18의 세 문항의 합산 점수가 남학생은 4점, 여학생은 3점 이상인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군’으로 분류된다.

3.2.2 Beck의 우울증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는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aron T Beck에 의해 1961년에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이다[17]. Beck의 우울 척도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하여 총 0점에서 63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상적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은 16점으로 설정된다. 단, 2013년 관리매뉴얼에 의하면 21점 이상을 절단점으로 잡아 관리대상 학생을 분류하며, 24점 이상은 우선관리 고위험군으로, 그리고 9번 문항에 2점 이상으로 답한 학생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한다[6].

3.3 연구절차

2013년 6월 A, B학교는 국가 지침에 따라 수업 시간을 통해 AMPQ-II검사와 BDI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검사 종료 후 절단점수를 근거로 관리 대상을 분류하였으며, 각 학교는 정부 지침과 학교의 상황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2013년 6월말부터 관리 대상 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학교 상담적 개입을 시작하였다. 상담 후 2014년 상반기기를 이용하여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집단에 대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련 검사를 설문지 방식을 통해 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상담 이전의 검사와 상담 이후의 검사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4. 결과

4.1 변인간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모두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으며, 현 제도상 개입전 검사의 원 점수는 기록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들(개입 전 후 AMQP-II 유형, 개입 전 후 BDI 유형, 개입 후 AMPQ-II 점수, 개입 후 BDI 점수)의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Table 1).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비모수적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Shapiro-Wilk Test for observed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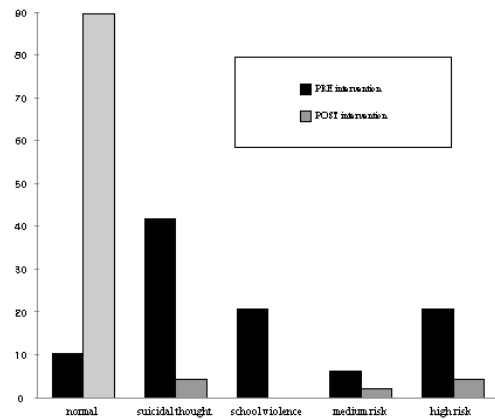
Variables	N	Shapiro-Wilk Stat.(W)
PRE-AMPQ category	48	.840***
POST-AMPQ category	48	.327***
PRE-BDI category	48	.768***
POST-BDI category	48	.417***
POST-AMPQ score	48	.897***
POST-BDI score	48	.93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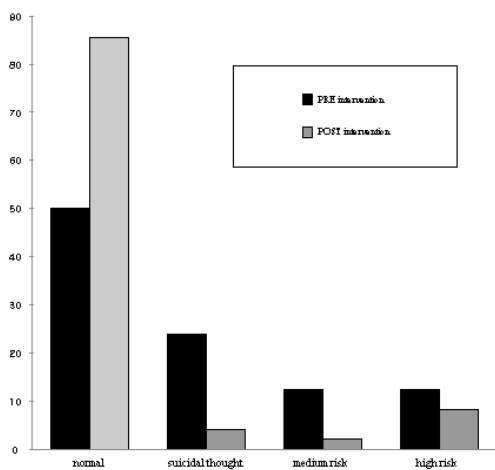
4.2 관리 대상 학생의 개입전후 변화

[Figure 1]과 [Figure 2]는 관리매뉴얼에 따른 개입 전후의 AMPQ-II유형과 BDI유형을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입 전 관리학생들은 개입 후 AMPQ-II유형에 있

어서는 89.6%, BDI유형에 있어서는 85.4%가 정상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카이자승 검증 결과 사전유형과 사후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AMPQ-II: $\chi^2 = 61.144, p < .001$, BDI: $\chi^2 = 15.560, p < .01$). 즉, 상당수의 학생들은 개입 이후 심리적 증상이 호전됨을 알 수가 있다. AMPQ-II검사에서 개입 전 관리대상 유형으로 판정된 학생들 중 5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개입 후 AMPQ-II 검사에서 정상으로 분류되었으며, BDI검사의 경우 관리대상 학생 중 7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개입 후 정상으로 평정되었다.



[Fig. 1] Percentages of the AMPQ-II categori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ig. 2] Percentages of the BDI categori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4.3 상담자의 자격별 개입전후 변화

상담자의 자격에 따라 대상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의 변화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MPQ-II 검사의 점수분포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U=165.00$, $p<.05$, $r=.36$).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개입 후 AMPQ-II 중위점은 21점이며, 민간자격 집단의 중위점은 10점으로써 민간자격 집단의 점수가 더 낮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격 집단이 더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했다 해석할 수 있다. BDI 검사 역시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개입 후 중위점은 13점이며, 민간자격 집단의 개입 후 중위점은 4점으로 점수분포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U=129.00$, $p<.001$, $r=.46$).

4.4 상담 회기 수에 따른 개입전후 변화

상담 회기 수 수준에 따른 개입 후 AMPQ-II 및 BDI 점수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절한 U 검정을 위해 2개의 회기 집단을 나누었다. 그 결과 상담을 1-3회 받은 학생은 28명(58.3%), 상담을 4회 이상 받은 학생은 20명(41.7%)으로, 상담 4회를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유사한 수의 학생들이 각 집단에 배분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U=353.5$, $p=.12$, $r=.22$). 1-3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개입 후 AMPQ-II 중위점수는 11점이었으며, 4회 이상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개입 후 AMPQ-II 중위점수는 1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BDI 검사에 있어서도 1-3회 상담군의 중위점수는 7, 4회 이상 상담군의 중위점은 11로, 이들 간의 점수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U=357.0$, $p=.11$, $r=.23$).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매뉴얼을 통해 이뤄진 학교 내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2013년 학교 내 개입을 시행한 K지역의 A, B 두 중학교의 관리대상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한 결과, 첫째, 2013 학생정

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 개입 시 관리 대상 학생의 정서행동특성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 전후 AMPQ-II 검사와 BDI검사에서의 변화추이를 보면, 85%가 넘는 학생이 이전의 문제 유형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리매뉴얼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개입이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 매뉴얼에 따른 개입 후 상담자 자격증별 특성에 따라 관리 대상의 정서행동상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격증 보유자의 상담효과가 국가자격증 보유자의 상담효과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치료적 요인으로서 상담자 변인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10][11]. 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정지침의 방식으로 학교 상담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한다 하더라도, 개입의 효과에 있어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함을 함의한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의 전문자격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도 유사하다[12]. 상담자 전문자격별 개입효과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국가공인 자격 집단이 민간 자격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의 수준이나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1][12].

셋째, 국가 관리 매뉴얼에 따른 회기 수를 기준으로 개입을 실시한 후 학생정서행동특성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관리 매뉴얼에 따라 회기 수를 늘리는 것은 개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의 회기수를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증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회기 수를 지정하기 이전에 무엇이 비용과 상담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회기 수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 개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선행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매뉴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로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연구만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

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나 개별 학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자체에만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학교 상담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원성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적 운영과정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그 과정이 어쨌건 간에 AMPQ-II의 유용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의 효과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척도를 상담 전과 상담 후에 적용하여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AMPQ-II의 경우 이의 개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반면 막상 이를 이용하여 학교 개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였다. 본 연구는 상당한 국가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이 최소한 의미 없지는 않았다고 밝힌 첫 번째 연구로, 이는 이후 이 사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학교 상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교 상담 실무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에 참여하는 학교 상담교사들의 불만족감은 대체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3]. 이러한 불만족감의 이유는 여러 요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검사가 실제로 위험집단의 선별에 있어 유용한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집단에 개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상담자의 소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학교 상담 현장에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추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다시 실시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5.2. 연구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1개 지역의 두 학교에서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있어서의 유의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관리 매뉴얼에 따른 절차 및 학교환경 여건상 관리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상담을 실시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 통제 집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리대상 학생들이 상담 후 절대적인 측면에서 호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변화가 진정한 상담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정된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경우 개입 전과 개입 후의 변화를 정상 및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비모수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개입 전의 원점수를 알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모수치 통계분석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관리대상의 인구사회적 개인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개입 전 원점수를 포함한 개인자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함의를 풍부하게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의 결과 민간자격증 보유자의 상담효과가 국가자격증 보유자의 상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11], 학교장면에서도 역시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더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한정된 학교만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각 상담자 집단에 속한 상담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 및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제 3의 변인의 효과를 막기 위해 상담자의 학력, 연령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제 3의 변인의 효과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 민간자격 집단 국가자격 집단에 비해 상담효과가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 전문자격별 개입효과와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언급된 기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11][12]. 즉, 기존의 주장을 실제 경험적 연구로 밝힌 첫 번째 연구로써 그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보다 충분한 수의 상담자 집단이 모인 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원칙적으로 상담 자격에 따른 효과를 적절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집단에 30-50명 정도의 표본수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한 학교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교사가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 중학교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정도 수치라면 광주나 대전에 있는 모든 중학교 수에 해당되며, 현실적으로 개인 수준의 연구를 하기에는 규모나 절차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즉, 이와 같은 주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단위의 연구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주장을 경험적 연구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단위의 추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경우 회기 수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통계검증을 위한 구분을 1-3회와 4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표본 수가 충분하다면 모든 회기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상담의 지침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역시 개인 수준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으며, 국가가 나서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상담회기를 찾는 작업은 국가개입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본 연구는 추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단위의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즉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에 비해 실제로 상담효과가 더 좋다면, 현재의 학교상담자의 배치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담 회기수가 증가하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이 역시 이후의 학교상담 지침에 중요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은 수의 표본만을 통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사회적 함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매뉴얼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는 통합적인 학교 상담 제도의 일부이다. 상담과 관련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담

을 통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그들의 발달적 이슈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학교 내 상담 개입에 대한 결론과 다양한 정보들 역시 학교 상담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편견을 제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상담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Foundation.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pp.1-174,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Foundation, 2011.
- [2] M. H. Ahn, "Intervention for Behavioral-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Based Preven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 pp.113-130, 2005.
- [3] E. K. Bae,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ADHD, Mental Health Screening and Teachers Training", *The Korea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 pp.433-457, 2013.
- [4] Schmidt JJ. *Counseling in schools*. pp.1-384. Allyn and Bacon, 1996.
- [5] J. Y. Ryu, S. S. Park, "Formation process of school counseling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 pp.297-312, 1998.
- [6] Ministry of Education. *The AMPQ-II and administrative manual*. pp.1-113, Ministry of Education, 2013.
- [7] H. J.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Wee Class Program Applied in Geoje G High School*, pp.1-73.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ang University, Korea. 2009.
- [8] Prout, HT, Brown, D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4th Ed.)*. pp.1-480. John Wiley & Sons, 2007.
- [9] W. Lutz, S. C. Leon, Z. Martinovich, J. S. Lyons, W. B. Stiles. "Therapist effects in outpatient psychotherapy: A three-level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pp.32-39. 2007.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4.1.32>
- [10] Lambert, MJ.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ur Change*, pp. 227-306. John Wiley & Sons, 2004.
- [11] D. H. Cho,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or affecting the stay in counseling*, pp.1-66.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1998.

- [1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System for Counselor: Focusing on School Counseling*, pp.1-12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3] S. D. Brown, R. W. Lent.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740-766. Erlbaum, 2000.
- [14] M. J. Lambert, K. Cattani-Thompson, K. "Current Finding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pp.601 - 608. 1996.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96.tb02299.x>
- [15] S. A. Jung, D. H. Ahn, S. Y. Chung, Y. G. Jeong, Y. Y. Kim, "Development of screening test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7, pp.168-176. 2008.
- [16] S. J. Kim, C. S. Lee, Y. R. Kweon, M. R. Oh, B. Y. Kim, "Tes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pp.700-708,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5.700>
- [17] A. T. Beck, C. H. Ward, M. Mendelson, J. J. Mock, J. Erbaugh,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pp. 53-63. 1961.
DOI: <http://dx.doi.org/10.1001/archpsyc.1961.01710120031004>

설 지 원(Ji Won Seul)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14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 (교육학석사)

<관심분야>

학교상담, 상담심리학, 교육학

김 근 영(Geunyoung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6년 5월 : Vanderbilt University,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Ph.D.)
- 2007년 3월 ~ 2011년 8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학, 사회인지 발달, 아동심리학